

후루보추(古坊中)란 무엇이였을까?

사이간덴지 절은 726 년에 인도에서 온 사 이에 이(最榮)라는 승려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절은 화산신앙과 슈겐도(修驗道)의 주요 거점이 되었습니다. 14~15 세기가 되자 수백 명의 야마부시(산악 수행자)들이 절 서쪽에 펼쳐진 비교적 평탄한 땅을 차지했고, 이 지역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아소 가문의 비호 아래 발전하게 되었습니다. 이 야마부시와 승려들의 원만한 공동체는 후루보추(古坊中)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 보추(坊中)란 '승려들의 모임', 후루(古)'라는 접두어는 '오래된'이라는 뜻입니다.

후루보추는 92 개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, 그 구획은 100 m²의 작은 것부터 1,000 m²에 이르는 큰 것까지 다양했습니다. 이곳에 살던 수백 명의 야마부시들은 37 개의 훌륭한 목조 사원과 51 개의 작고 소박한 초가 건물을 지었습니다. 그들은 매일 명상과 단식, 경전 등의 수행에 정진하거나 분화구 내 연못을 관찰하여 신들의 마음 상태를 살피거나, 참배자들이 분화구를 참배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허용된 가장 높은 지점까지 안내하기도 했습니다.

1960 년대 한 농가가 소를 방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 지역을 정비하던 중 몇 개의 작은 석탑을 발견했습니다. 2000 년대에는 구마모토대학 화산학자 와타나베 가즈노리 교수가 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그 결과, 야마부시의 거처 지붕이었던 불에 탄 석재와 절 건물의 나무기둥이 발견되었습니다.